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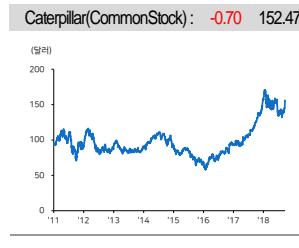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302.7	16.7	134,500	5.1	14.0	31.9	40.2	93.7	44.9	0.7	0.6
현대중공업지주	6,506.5	20.7	399,500	3.9	5.8	13.0	4.9	5.4	4.5	0.7	0.6
현대엘렉트릭	709.3	5.0	69,500	0.9	17.4	-0.7	-39.0	6.6	5.7	0.6	0.5
현대건설기계	1,224.7	8.4	124,000	0.8	5.1	-12.1	-26.6	7.9	5.8	0.9	0.8
삼성중공업	5,040.0	18.1	8,000	1.9	13.0	12.0	23.7	50.5	25.0	0.5	1.0
대우조선해양	3,746.8	9.2	34,950	4.5	22.8	29.4	151.4	8.7	18.5	1.0	1.0
현대미포조선	2,060.0	10.1	103,000	5.7	5.3	20.0	30.9	22.2	16.0	0.8	0.7
한진중공업	274.7	7.0	2,590	-0.6	-1.0	-13.1	-21.8	52.1	13.0	0.4	0.4
현대엘리베이터	3,136.8	23.9	115,500	-3.8	26.5	28.9	112.3	20.4	19.8	28	25
두산밥캣	4,020.0	26.1	40,100	4.0	12.6	25.3	13.5	14.7	13.8	1.1	1.1
현대로템	2,686.0	2.6	31,600	-2.6	16.0	12.7	68.5	40.8	27.8	1.8	1.7
하이록코리아	325.4	48.9	23,900	0.0	-2.6	-6.6	6.2	10.8	9.9	0.9	0.9
성광밴드	366.1	16.2	12,800	2.0	9.9	10.3	28.3	1,131.5	45.9	0.8	0.8
태평	369.7	13.2	13,950	-1.1	8.6	17.7	15.8	83.3	40.7	0.9	0.9
두산중공업	1,751.3	15.0	14,950	0.7	5.7	-4.5	-2.6	24.7	9.0	0.5	0.5
두산인프라코어	2,019.1	20.4	9,700	-0.9	1.9	0.6	11.6	6.5	6.0	1.1	0.9
HSD에프진	150.2	4.3	4,560	0.0	20.6	9.6	77.5	-17.5	-23.1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4,873.8	14.5	50,000	8.1	19.8	21.4	5.4	41.8	30.8	4.2	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93.5	12.0	28,700	9.3	14.8	22.4	-19.3	37.1	20.4	0.7	0.7
LIG넥스원	786.5	8.7	35,750	6.9	7.4	-10.7	-40.2	38.2	18.3	1.3	1.2
태웅	284.1	4.8	14,200	-0.4	-10.4	-12.3	-26.6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12.4	5.2	7,870	1.2	3.4	17.5	55.8	-40.4	21.1	2.7	2.5
한국기본	295.0	14.0	6,710	0.8	5.7	6.7	25.2	77.9	20.7	0.9	0.9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Boeing Beats Lockheed for \$9.2 Billion Air Force Trainer Program

Boeing은 Lockheed Martin-한국항공우주와 경쟁했던 92억달러 규모의 미국 APT(고등 훈련기) 사업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미국 공군은 2034년까지 Boeing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351~475대 훈련용 항공기와 120기의 이상 훈련시스템을 생산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8.13억달러로 알려짐. (Bloomberg)

## 현대상선 이주 내 컨테이너선 발주 본계약…해운·조선 재건 본격 시동

현대상선이 발주 예정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에 대한 본계약을 28일에 체결 향망임. 총 계약규모는 3조원 수준이며, 현대중공업에 1.4만TEU급 8척, 삼성중공업에 2.3만TEU급 5척, 대우조선해양에 2.3만TEU급 7척을 발주할 계획임. 인도는 2020년 2분기로 예정, 현대중공업은 2021년 2분기 목표임. (이데일리)

## Hunter keeps optional VLCC trio in its sights

Hunter Group은 대우조선해양에 보유한 VLCC 읍션 3척에 대한 만기를 10월 19일까지 연장했다고 알려짐. 읍션선 선가는 9,200만달러 수준으로, 만기 연장에 따라 선가나 인도일정 변경은 없다고 알려짐. 읍션 3척을 포함해, Hunter Group이 대우조선에 보유한 VLCC 수주잔고는 총 10척임. (TradeWinds)

## Qatar to expand LNG production facilities

글로벌 최대 LNG 생산업체인 Qatar Petroleum은 LNG 연간 생산량을 7,700만 톤에서 1.1억톤으로 43% 늘릴 계획임. 이를 위해 Qatar는 이미 계획된 3개 트레인 외에도 추가로 LNG 플랜트 건설을 계획함. 새롭게 건설될 LNG 플랜트 생산능력은 연간 LNG 3,200만톤 규모로 알려짐. (TradeWinds)

## Equinor in approach for 40% stake in Rosebank

노르웨이 국영 석유기업 Equinor(Statoil)은 Chevron이 보유한 Rosebank 프로젝트 지분 40%를 취득하기 위해 접촉했다고 알려짐. 실제로 접촉했는지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나, 여러 매체에서 접촉이 확인됨. 또 Total은 이번 주 Chevron이 보유한 덴마크 지역 Upstream 사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함. (Upstream)

## Knutsen Offshore to charter two suezmaxes

Knutsen NYK Offshore Tankers(KNOT)는 노르웨이 Equinor와 5~7년간 15.2만DWT급 suezmax 타이틀 2척에 대한 용선 계약을 체결함. KNOT는 현대중공업에 2척 모두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노르웨이 언론에 따르면 선가는 척당 1.1~1.2억달러로 예상되며, 인도는 2020년 예정됨. (TradeWinds)

## Faerder shifts suezmax order to Daehan

Faerder Shipping은 대한조선에 15.8만DWT급 suezmax 탱커 2+2척을 발주 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오일메이저 Chevron에 용선될 계획임. 선가는 척당 6,200만달러 수준으로, 스크루버가 장착될 예정으로 알려짐. 한국은 중국보다 선가가 높으나, Chevron의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짐. (TradeWinds)

## First KC-1 LNG newbuilds set to undergo repairs

SK해운이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LNG선에 처음 납품되었던 KC-1 화물창은 기술적 문제로 수리 및 추가 조사를 계획한다고 알려짐. 이를 위해 해당 선박은 삼성중공업에 반환됨. 수리 계획은 약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며, SK해운은 KC-1 결함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힘.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